

1957년 <한국국보전(Masterpieces of Korean Art)>의 성립과정 검토

김현정*

<차 례>

- 머리말
- 한국미술 미국전시의 연원
- 국무부의 전시 진행 과정
- 한국국보전에 대한 고찰
- 맺음말

[국문초록]

1957년 미국에서 개최된 한국국보전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중요성에 비하여 한국국보전의 성사 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한국국보전이 마치 호놀룰루미술관장 로버트 그리핑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오인되어 왔다. 이 전시는 그리핑이 아니라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기존의 반공 정책을 수정하면서 시작된 국무부의 사업이다. 전시 주체에 대한 오해는 한국국보전 이해에 큰 걸림돌이었다.

그리핑은 한국미술의 미국전시에 관심을 가졌던 최초의 미국인이었지만, 그의 전시 구상은 6.25 전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그리핑 주도의 한국문화재 미국전시를 한국 정부가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무부가 전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핑이 주도하는 전시계획은 완전히 폐기되고, 한미 양국의 문화교류로서 국무부 주도의 '한국국보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국무부는 한국국보전을 통해 자유우방의 친선을 강화하고 문화를 중시하는 미국의 이미지 창출하고, 자국민들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기를 기대했다. 한국은 이 전시를 통해 한국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미국의 새로운 동맹이 되고자 했다.

그런데 한국국보전은 그 성과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 일본에서 분리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국보전의 최대 성과로 꼽았지만, 전시품의 선정과 도록 구성 그리고 전시 연출은 일본의 시각 안에서 작동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한국의 대표 문화재가 일본 고고학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미국 큐레이터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이 감추어지고 전시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된 것은 한국국보전에 앞서 오랫동안 전개된 전쟁재 문화재 반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주제어] 국립박물관, 김재원, 로버트 그리핑, 아델리아 홀, 호놀룰루미술관, 미 국무부

1. 머리말

1957년 12월,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을 소개하는 <한국국보전>¹⁾이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한국의 주요 문화재²⁾ 약 200점이 18개월에 걸쳐 미국의 8개 도시를 순회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첫 국외 전시회였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난을 겪는 한국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한국국보전을 수행한 국립박물관은 민족문화의 수호자이자 국위선양 기관으로 급부상하였다. 한국국보전 개최 이전까지 국립박물관은 문화재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었다.³⁾ 그래서 국회는 1954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국립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상태를 조사하기도 했다.⁴⁾ 이후 미국에서 들려오는 한국국보전에 대한 호평은 국립박물관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인식을 사라지게 했다.

이렇듯 한국국보전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고, 박물관의 위상을 새롭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전시 논의의 시작과 추진과정 그리고 시대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1) 미국 전시명은 <Masterpieces of Korean Art>이고, 한국에서는 <한국국보전>으로 명명되었다. 간혹 <한국고대문화전>이나 <한국미술명품전>으로 표기하나, 1957년 덕수궁석조전 외벽 현수막에 <해외전시 한국국보전>으로 표기되었다.

2) 2024년 5월부터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지만, 필자는 논문 주제의 시대성을 고려하여 '문화재'로 표현하였다.

3) 「民族遺産에赤信號?」, 『경향신문』, 1952.02.04.; <박물관 소장 국보 해외반출의 건> 1952.03.27. (제2대 국회 제1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年鑑刊行의緊急性」, 『조선일보』, 1954.9.27.; 「國寶 健在」, 『경향신문』, 1955.05.04.

4) 국회는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 처리에 앞서 국립박물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립박물관의 국보 관리상황 조사에 관한 결의안> 1954.10.06. (제19회 국회임시회의의 속기록-54호.)

내용은 김재원 국립박물관장이 미국 연수 중 호놀룰루미술관장 로버트 그리핑과⁵⁾ 한국미술전시를 논의했으나 전쟁으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휴전 이후 다시 제기되어 1957년 12월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이다.⁶⁾

최근에서 와서 한국국보전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정무정은 6.25 전쟁 이전 그리핑의 한국미술 전시 논의과정을 1957년 한국국보전의 전사(前史)로서 검토하였다.⁷⁾ 그리고 전쟁 이후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부산 피난이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였고,⁸⁾ 또 다른 논문에서 한국국보전은 미국의 문화교류 방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 이광표는 3차에 걸친 국회동의요청 과정에서 문화재 국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에 초점을 두고 부산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가 한국국보전으로 전개되는 흐름을 살펴보았다.¹⁰⁾ 그리고 필자는 피난 문화재의 반출지가 줄곧 호놀룰루미술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전쟁기 문화재 국외반출 논란이 한국국보전으로 일단락되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¹¹⁾ 이 연구들은 6.25 전쟁으로 발생한 문화유산의 피난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한국국보전 자체를 주목한 연구는 아니다. 한국국보전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등과 같은 기본적 사실조차도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에 한국국보전의 성격, 시대적 의미 등 더 깊이 있는 연

5) 로버트 그리핑(Robert P. Griffing Jr., 1914~1979)은 동아시아미술 전문가로 1947년 하와이 호놀룰루미술관의 관장이 되었다. (Howard A. Link, Robert P. Griffing Jr. (1914~1979), *Archives of Asia Art*, Asia Society 33, 1980, pp.113-115.)

6) 문교부, 『문화재 미국전시 보고서』, 1960; 김재원, 『경복궁야화』, 탐구당, 1991; 장상훈, 『국립박물관 아카이브 기행 28: 한국 문화재 국외 전시사업의 태동』, 『박물관신문』 제573호, 2019.

7) 정무정, 『《한국 국보전》 전사(前史): 불발된 1947년 한국미술전 계획』, 『미술사학』 47,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4.

8) 정무정, 「한국전쟁과 국보해의소개(疏開/紹介) 그리고 록펠러재단」,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0,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0.

9) 정무정, 「1950년대 미국에 소개된 한국미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4,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5.

10) 이광표, 「6·25 전쟁기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의미와 성과」, 『한국학연구』 6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11) 김현정, 「6.25 전쟁기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국외반출 과정에 대한 신고찰」,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57-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4.

구로 나아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국보전 연구의 출발로서 한국국보전이 그리핑과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존 명제부터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1957년 한국국보전과 1948년 그리핑 구상의 관련성은 1954년에 제출된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 1960년 문교부가 발간한 전시 결과보고서, 김재원의 여러 회고 등에서 확인된다. 특히 김재원은 미국전시 성사에 그리핑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¹²⁾ 그래서 한국국보전에 그리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과연 두 사안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그리핑의 역할이 강조되는 배경은 무엇인지를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러기 위해 그리핑이 김재원을 만나 전시를 논의한 1948년부터 워싱턴에서 전시가 개최된 1957년 12월 까지 전 과정 면밀하게 분석하여 기존 명제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다. 이를 토대로 한국국보전 논의는 언제 시작되었고, 이 사업을 이끈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과 한국국보전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밝혀 한국국보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2. 한국미술 미국전시의 연원

1) 그리핑의 한국미술 전시 구상

(1) 그리핑의 전시계획과 문화재 피난처 제안(1948~1951)

한국미술의 미국전시 논의가 1948년 그리핑과 김재원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오래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정무정의 연구로 상세히 밝혀졌다.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³⁾ 그리핑은 1947

12) <문화재해의전시에 관한 국회동의요청에 관한건> 1954.7.15. (국회입시회의속기록, BA0170220); 문교부, 앞의 1960, 1쪽; 김재원, 앞의 1991, 81쪽.

13) 정무정, 앞의 2024.

년부터 한국미술전시에 관심이 있었고, 1948년 미국 연수를 하던 김재원은 하버드대 랭던 워너¹⁴⁾에게 그리핑의 의중을 들었다. 그리고 그리핑은 미군 정청에 근무했던 월터 기파드를¹⁵⁾ 통해 김재원을 만나 한국미술전시 의사를 전했다. 김재원이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그리핑은 전시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국무부도 그리핑의 계획을 어느 정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¹⁶⁾ 국무부가 주관한 교육교환 프로그램에 김재원이 추천한 뉴욕대 교수 살모니를¹⁷⁾ 선정하여, 살모니가 한국 정부와 전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¹⁸⁾ 그리핑은 미국의 여러 박물관에 전시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고, 많은 박물관이 이 계획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6.25 전쟁 발발로 그리핑의 전시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면서, 그리핑의 첫 번째 시도가 좌절되었다.

무산된 전시계획에 뒤이은 그리핑의 두 번째 행보는 한국 문화재의 피난처 제안이었다.¹⁹⁾ 1.4후퇴 직후 정부는 부산 피난 문화재 18,883점 전량을 미국으로 소개(疏開)하려 했는데, 국무부는 미국 반입을 거부하며 일본 제실박물관으로 이전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피난 문화재의 국외 소개는 중단된 듯했다.²⁰⁾ 이 상황에서 1951년 3월 그리핑이 갑자기 등장해 한국의 피난문화재를 호놀룰루미술관에서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

14) 랭던 워너(Langdon Warner, 1881~1955)는 하버드대에서 아시아미술을 전공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결성된 일명 모뉴먼츠 맨(Monuments Men)으로 활약했다.

(The Monuments Men and Women Foundation <https://www.monumentsmenfoundation.org/warner-langdon>) 도쿄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고문으로 1946년 방한하여 호우총 발굴을 승인하였고, 미군의 막사 건축으로 개성 만월대가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

15) 월터 기파드(Walter D. Giffard, 1909~1965)는 미군정청 학무국에 근무했고, 경주 호우총 발굴을 담당했다. 제대 이후 고향인 호놀룰루에서 고미술품 사업을 했다. (김재원, 앞의 1991, 111쪽)

16) Letter from Espinosa to Alfred Salmony, December 12, 194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Record Group 59.)

17) 알프레드 살모니(Alfred Salmony, 1890~1958)는 동양미술사를 전공한 뉴욕대 교수로 김재원과 1936년부터 교류가 있었다. 1950년 6월 방한하여 국립박물관에서 첫 공개 강연을 한 직후 전쟁이 발발하여 조기 귀국했다. (김재원, 앞의 1991, 64~66쪽)

18) 『美州에서의 韓美展』, 『조선일보』, 1950. 06. 20.

19) Letter from Honolulu Academy of Arts to William Stokes, US Political Adviser, SCAP, Mar. 5, 1951.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집위원회, 『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협회, 2009, 541쪽.)

20) Telegram from Embassy, Pusan to Secretary of State, Feb. 28, 1951.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집위원회, 앞의 2009, 545쪽.)

했다.²¹⁾[그림 1] 그리핑은 보관하는 동안 한국 문화재의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순회전시 계획을 워너, 유진 크네즈²²⁾와 긴밀히 의논하고 있었다.²³⁾ 한국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하여 포장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여 1951년 12월에 하와이로 소개 준비가 완료되었으나,²⁴⁾ 최종 단계에서 실행되지는 못했다.

1951년 그리핑 계획은 한국의 피난 문화재 전체를 하와이로 반입하려는 엄청난 사안이었다. 게다가 관리비용도 호놀룰루미술관이 부담하고, 김재원을 “특별소장품 큐레이터”로 채용하겠다고 했다.²⁵⁾[그림 2] 그리핑이 이런 열의를 보인 이유는 한국 문화재의 독점적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²⁶⁾ 그리핑은 워너를 통해 미국 내 학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²⁷⁾[그림 3] 한국 문화재의 호놀룰루 반입에 힘을 쏟았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을 위한 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반대로 피난 문화재의 호놀룰루 이전은 1952년에 들어 중단되었다.²⁸⁾[그림 4] 한국미술전시를 기대한 그리핑의 두 번째 좌절이었다.

(2) 호놀룰루로 문화재 반출계획과 국회동의요청(1952~1954)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이 확실시된 1952년 7월, 정부는 그간에 그리핑과 비공개적으로 협의하던 문화재 국외반출 문제를 국회로 가져갔다. 김재원

21) 표면적으로는 그리핑이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그리핑에게 요청했다. Charles B. Fahs' Diary, Honolulu, June 1, 1952.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G1, 2, F26/ 이하 RF_RG1.2_F26)

22) 유진 크네즈(Eugene I. Knez, 1916~2010)는 미군정청 학무국장으로 호우총 발굴 등을 담당했다. 이후 부산 공보원 소속으로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을 지원하였다. (Eugene I. Knez, 『한 이방인의 한국사랑』, 국립중앙박물관, 1997.)

23) Letter from Langdon Warner to Eugene I. Knez, USIS State Department, April 14, 1951. (김리나, 『한국전쟁시기 문화재 피난사』, 『미술자료』 86, 국립중앙박물관, 2014, 188~189쪽.)

24) <진열품포장완료보고의 건> 1951. 12. 13. (국가기록원, BA0806538)

25) 김재원도 전쟁 중에 호놀룰루미술관에서 급여를 받으며 가족 동반으로 주요 문화재와 함께 국외로 나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고민했고, 국민이 느낄 당혹감도 알고 있었다. (Letter from Langdon Warner to Eugene I. Knez, April 14, 1951.)

26) <한국정부와 호놀룰루예술원과의 한국문화재 임시보관에 관한 약정안 제출의 건> 1951. 12. 18. (국가기록원, BA0806539)

27) Letter from Warner to Mortimer Graves, June 23, 1951. (RF_RG1.2_F25)

28) Excerpt from Charles B. Fahs' Diary, April 12, 1952. (RF_RG1.2_F26)

의 회고에 따르면, 전쟁 위기 속에서 문화재를 국외 소개하려 했을 때 호놀룰루미술관이 보관처 제공을 제안하자 정부는 국민 정서와 공산진영의 비난을 우려하여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전황이 호전되면서 정부가 호놀룰루로 반출계획을 자진 철회하였고 했다.²⁹⁾ 그런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국회동의요청이 법적 규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목적을 소개에서 전시로 바꾸어가며 약 3년에 걸쳐 총 3차례나 추진했다.

1952년 7월, 정부는 피난 문화재 국외 반출을 위해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내용은 1951년의 호놀룰루미술관으로 소개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핑의 1951년 제안이 한국 정부에 의해 1952년에 재추진된 것이다. 제1차 동의요청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그리핑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시가 실행될 것이라 믿었다.³⁰⁾ 그러나 제1차 국회동의요청은 반출목적의 모호성, 국민의 동요 등을 이유로 1953년 5월에 부결되었다. 이로써 그리핑의 계획은 세 번째 중단되었다.

1953년 6월 제출된 제2차 국회동의요청은 반출목적이 ‘미국 내 순회전시’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그런데 전시의 주체가 한국이 아닌 호놀룰루미술관이었다. 즉 그리핑에게 한국문화재의 미국 순회전시를 맡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도 1953년 12월 회기 종료로 부결되면서, 그리핑의 전시계획은 네 번째 중단을 맞았다.

3차 국회동의요청안 제출은 제2차 부결 이후에 그리핑이 직접 나선 결과이다. 그리핑은 1954년 2월 김재원에게 이승만 대통령과의 접견을 부탁하여³¹⁾ [그림 5] 1954년 4월에 실제 성사되었다.³²⁾ 그 결과로서 그리핑 주도의 미국순회 전시계획인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1954년 6월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심의되는 동안에 정부는 전시 파트너를 그리핑에서 국무부로 바꾸었다. 그래서 1955년 4월 국회를 통과했

29) 김재원, 『여당수필집』, 탐구당, 1973, 282쪽; 김재원, 앞의 1991, 78-82쪽.

30) Excerpt from Robert Griffing's Letter to Charles B. Fahs, Sept. 15, 1952. (RF_RG1.2_F26)

31) Letter from Chewon Kim to Robert Griffing, February 28, 1954. (장상훈, 『김재원 국립박물관 초대 관장 영문편지』, 국립중앙박물관, 2019, 52쪽.)

32) 「이 대통령을 예방 - 하와이博物館長 郭氏等 來韓」, 『조선일보』, 1954.04.04.

을 때는 그리핑의 전시계획이 이미 폐기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그리핑은 다섯 번째 중단을 경험했다.

이상과 같이 그리핑은 1948년부터 5차례이나 한국 문화재의 미국전시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현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2) 미 국무부의 한국미술 전시 추진 배경

(1) 국무부의 입장 변화(1953.10 ~1954.10)

제3차 국회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무부가 이제는 전시사업의 주체가 되었다. 그간 피난 문화재 국외 반출에서 실제적 난관은 국무부의 반대였다. 국무회의에서 피난 문화재의 호놀룰루 반출을 ‘미 국무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사안으로 의결할 정도였다.³³⁾[그림 6] 이런 국무부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1953년 10월 국무부가 유엔한국재건단(UNKRA)에 보낸 문서에서 확인된다.³⁴⁾ 국무부는 아델리아 홀³⁵⁾이 준비하는 한국 고미술 전시와 고건축사진전에 UNKRA의 참여를 요청했다.[그림 7]

국무부는 미국의 주요 박물관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공산진영으로부터 비난의 소지가 없으며 재원 마련에 부담이 없는 한국미술전시를 염두에 두었다. 그래서 홀과 UNKRA의 에블린 맥퀸³⁶⁾은 한국에서 주요 문화재 50점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미국 박물관에서 대여한 소규모의 전시를 구상했다. 소량 문화재 국외 반출은 한국 국회의 승인도 가능하고, 한국인도 환영할 것

33) <국무회의의 제출 안건 처리 현황 통지의 건> 1952.09.23. (국가기록원, BA0806540)

34) <Recommendation for an Exhibition of Korean Architecture and Antiquities> 1953. 10. 5. (국가기록원, DTA0000040)

35) 아델리아 홀(Ardelia R. Hall, 1899~1979)은 아시아미술을 전공한 모뉴먼츠 맨(Monuments Men)의 일원이다. 1946년부터 1964년까지는 미 국무부에 근무하며 전쟁지역의 약탈문화재 반환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는 홀의 업적을 기리는 ‘아델리아 홀 컬렉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Monuments Men and Women Foundation)

36) 에블린 맥퀸(Evelyn B. McCune, 1907~2012)은 감리교 선교사의 딸로 평양에서 태어났다. 아시아 역사학을 전공한 전문성을 살려 미국 정부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한 모뉴먼츠 맨의 일원이다. 1951년 미의회 도서관 소속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전쟁피해 도서와 문화재를 조사했고, 1953년부터 1954년까지 UNKRA에서 근무했다. (Monuments Men and Women Foundation)

으로 생각했다.³⁷⁾

김재원은 국무부의 이런 기조 변화를 알았고, 1954년 2월 그리핑에게 이를 알렸다.³⁸⁾ 그런데 그리핑의 구상은 국무부와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여전히 한국 피난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로 가져와 연구하려고 했다. 게다가 그리핑 입장에서 국무부의 관심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했다. 이에 1954년 4월 그리핑은 급히 이승만 대통령을 접견하여 전시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고, 그 결과로서 그리핑 주도의 전시계획인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마련되었다. 그리핑과 김재원은 전시 성사를 확신하며,³⁹⁾ [그림 8] 미국의 주요 박물관에 자신이 주도하는 전시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⁴⁰⁾ [그림 9]

하지만 국무부는 사립박물관장인 그리핑이 전시를 주도하면 미국 내 박물관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래서 기파드를 동행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는 그리핑의 행보와 한국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했다.⁴¹⁾ 그러면서 UNKRA 그리고 주한미대사관과 함께 한국미술 전시를 논의하고 있었다.

(2) 아델리아 홀의 방한과 그리핑 주도권의 상실(1954.10 ~1955.4)

국무부의 전시 준비는 아델리아 홀의 한국 파견으로 시작되었다. 홀은 전시 기획안을 가지고 1954년 10월 방한하여 약 2개월간 머무르며 이승만 대통령과 관료들을 만나서 미국에서 문화재 전시와 고건축사진전을 협의했다. 그리고 여러 문화 유적지를 실제 답사를 하면서 전시에 대한 윤곽도 잡고, 고건축을 촬영했다.⁴²⁾ 홀의 방한 이전 UNKRA의 맥킨도 프란체스카 영

37) Charles B. Fahs' Interview with Vincent Bruno, April 14, 1954. (RF_RG1, 2_F27)

38) Letter from Chewon Kim to Robert Griffing, February 28, 1954. (장상훈, 앞의 2019, 52쪽)

39) 김재원도 호놀룰루 전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가족 동반으로 호놀룰루에 가기 위해서 의사인 아내의 호놀룰루 거주권 확보에 나섰다. Charles B. Fahs' Interview with Chewon Kim, May 3, 1954. (RF_RG 12, F-L)

40) Letter from Richard K. Puller to Ardelia R. Hall, September 23, 1955.

(Internal_economic,_industrial_and_social_affairs__fine_arts_1, 국회전자도서관/이하 Internal_1)

41) Charles B. Fahs' Interview with Vincent Bruno, April 14, 1954. (RF_RG1, 2_F27)

42) Letter from Ardelia R. Hall to Captain Posner, March 3, 1955.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부인을 몇 차례 만나서 전시를 논의했었다.⁴³⁾

홀이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⁴⁾ 한국 정부가 주요 문화재 100여 점을 약 1년간 미국에 대여해 주면, 미국 5~6개 주요 박물관과 협력하여 순회전시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시 종료 이후 서울에서 다시 반환기념전시회를 열고, 한국어 특별판 도록의 발간계획도 있었다. 고건축사진전은 사진을 복제하여 여러 장소로 순회할 수 있어 문화재 전시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시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널리 알려지면, 한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홀의 제안을 크게 환영하며, 이런 전시가 일본보다 먼저 개최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⁴⁵⁾

한국의 호의적 반응에 국무부는 홀이 체류하는 동안,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국무부에 전시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⁴⁶⁾ 하지만 사사오입 개헌 파동 여파로 1954년 11월 이후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의 심의가 중단되면서 전시 협의도 진척되지 못했다. 게다가 1954년 12월 부산 용두산 대화재로 역대 왕들의 어진과 어필, 궁중 일기 등 주요 문화재 상당수가 소실되면서,⁴⁷⁾ 문화재 관리에 소홀한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져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논의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되었다.⁴⁸⁾ 한국 국회의 승인을 기다렸던 국무부는 미국에서 개최된 여러 나라 국제 전시회의 공식 카탈로그를 주한미 대사관에 보내어 한국 정부가 국회 설득에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한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⁴⁹⁾

홀의 방한 결과보고서가 국무부에 제출된 시점인 1955년 4월, 중단되었

43) Letter from Evelyn McCune to Charles B. Fahs, March 15, 1955(정무정, 앞의 2020, 22쪽.)

44) <GENERAL REPORT OF MISSION TO KOREA BY THE ARTS AND MONUMENTS ADVISER OF THE DEPARTMENT OF STATE> April 12, 1955.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4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기념한 1953년 <일본 회화와 조각> 전시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정부도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의회의 비준을 얻고, 한국국보전이 이를 기념하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46) Letter from The Foreig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American Embassy, Seoul, January 5, 1955.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47) 「재로화한 國寶」, 『경향신문』, 1955.01.06.

48) 「國寶를 海外에 搬出말라」, 『동아일보』, 1954.12.04.; 「겨레의 자량危機에」, 『동아일보』, 1955.01.10.

49) <The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as an Expression of Friendship and Gratitude> January 12, 1955.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던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 심의가 갑자기 재개되었다.⁵⁰⁾ 국회 심의에서 문교부 장관은 미국 민간인이 아닌 미국 정부와 전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⁵¹⁾ 그리고 국무부에서 제공한 카탈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재 전시가 ‘문화외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⁵²⁾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1955년 4월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고, 이로써 한국미술의 미국 전시회는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 사업이 되었다.

그간 그리핑과 협의를 진행해 온 김재원은 전시의 주체가 국무부로 전환된 상황에 당혹했고, 이 사실을 그리핑에게 바로 알리지도 못했다. 오히려 그리핑이 제3자로부터 이 상황을 전해 듣고 1955년 7월 김재원에게 낙담한 자신의 심정을 격하게 토로하였다.⁵³⁾ [그림 10] 김재원은 홀의 방한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직접 전시를 제안하게 되었음을 알렸다.⁵⁴⁾ [그림 11]

이렇게 해서 1948년부터 오랫동안 한국문화재의 국외반출 그리고 미국 전시를 주도했던 그리핑의 입지가 붕괴되었다. 이제는 그리핑이 홀에게 전시에 관하여 문의해야하는 입장이 되었다.⁵⁵⁾ [그림 12]

3. 국무부의 전시 진행 과정

1) 아델리아 홀의 전시기획

(1) 전시기본계획 수립 (1955.5.~1956.4.)

국회 승인 이후, 정부는 미국과의 공식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시주관 기관, 전시장소와 전시 기간을 미국의 결정에 맡기되, 미해군 함정으

50) <문화재해외전시에관한동의안상정요청에관한건> 1955.04.07.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

51) <문화재 국외전시 동의안> 1955.4.22. (제20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33호)

52) <문화재 국외전시에 관한 동의안> 1955.04.25. (제20회 국회정기회의의속기록 35호)

53)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July 20, 1955. (장상훈, 앞의 2019, 68쪽)

54) Letter from Chewon Kim to Robert Griffing, August 31, 1955. (장상훈, 앞의 2019, 73쪽)

55) Letter from Ardelia R. Hall to Robert Griffing, April 17, 1956.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로 전시품 수송을 요청했다.⁵⁶⁾ 그러나 국무부는 3개월이 지난 1955년 9월에도 여전히 한국에 답을 하지 않았다.⁵⁷⁾ 이런 표면적 상황과 달리, 홀은 전시 기본 방향, 전시개최지, 전시협약, 운송 등 전시 전반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다만 한국 국립박물관에서 전시 예정 목록과 사진을 받아서 카탈로그를 만들어 순회전시에 참여할 미국 박물관과 교섭하려 했으나, 1956년 1월에도 목록을 받지 못해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었다.⁵⁸⁾ 한국 고건축사진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1955년 11월에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막했다.⁵⁹⁾

1956년 3월, 홀의 전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⁶⁰⁾ [그림 13] 핵심 내용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후원하고 한국 국립박물관과 미국 6개 도시의 박물관들이 협약을 통해서 1957년부터 약 1년 동안 순회전시 계획이다.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of Art)가 전시개최지 박물관을 대표하여 전시를 주관하고, 내셔널 갤러리에서 전시 개막을 예정했다. 약 3만 달러로 추정되는 전시 비용은 개최지 6개 박물관에서 각 5천 달러씩 부담하고, 전시품 선정위원회의 방한 비용은 록펠러재단 그리고 한국 측 관리자의 방미 비용은 국무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1956년 4월, 내셔널 갤러리가 홀의 계획에 동의하면서 한국문화재의 미국전시 사업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2) 미국 박물관장위원회 구성과 전시협약 (1956.5~1956.9)

1956년 5월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전시 제안을 6개 박물관에 알리며, 공식적인 협의에 들어갔다.⁶¹⁾ 이 전시는 한미 양국 정부 간에 공식적인 문화교류 사업으로서 1951년 개인 수집자가 제안한 한국미술전시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최지는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보스턴미술관, 미네아폴리스미술관, 샌프란시스코박물관

56) 「安全保障策을 照會 國寶海外展示 問題」, 『경향신문』, 1955.06.04

57) 「壇上壇下」, 『동아일보』, 1955.09.04.

58) Letter from Pyo Wook Han to President Rhee, Dec. 15, 1955. (국가기록원, BA0170220)

59) <Pentagon's Exhibit with Photographs of Korean Temples and Art Objects>, 1955.11.9.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60) Letter from Ardelia R. Hall to John Walker, March 15, 1955.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61) Letter from K. Allen Lightner, Jr. to David B. Finley, May 15, 1956. (Internal_2, 국회전자도서관)

관 그리고 호놀룰루미술관으로 확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개최지 박물관 관계자의 모뉴먼트 맨(Monuments Men) 활동 이력 여부였다.⁶²⁾

1956년 6월 8일, 국무부 주최로 한국 문화재의 미국전시에 관련된 기관이 모여서 첫 공식회의를 했다.⁶³⁾ 전시를 주관하는 내셔널 갤러리 관장이 한국 문화재 대여 전시의 절차를 설명하고, 홀이 작성한 전시협정서 초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기관들이 이 계획에 동의하면 박물관장위원회(committee of museum directors)를 구성하여 전시 일정과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한국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상의 전시품을 출품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시 진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 기간에 대해 미국 측은 1년으로 부족하므로 18개월로 연장을 요청했으나 합의되지는 못했다. 1956년 9월에 미국 전문가가 한국에 가서 전시품을 선정하고, 1957년 봄에 전시품을 미국으로 운송하여 1957년 10월 워싱턴에서 개막에 합의했다. 보험은 한국 정부가 가입하되, 총 12,000달러로 추산되는 보험료를 개최지 박물관이 각 2,000달러씩 부담하기로 했다.

6월 8일 공식회의 이후, 전시개최지 6개 박물관은 내셔널 갤러리 관장을 대표로 하는 박물관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56년 7월 말 박물관장위원회는 '전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협약안을 수정하여 한국 정부에 보냈다.⁶⁴⁾ 그리고 로버트 그리핑,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프리스트(Alan Priest)와 보스턴미술관 로버트 페인(Robert T. Paine)을 전시품선정위원으로 임명하고 1956년 9월 한국 파견을 결정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전시협정안을 받은 문교부는 1956년 8월 말 문화재해외 전시위원회를 개최해 내용을 검토했다. 미국 측의 2년 전시 요구에 문화재해외전시위원회는 국회 승인 조건대로 1년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미 해군에

62) Letter from K. Allen Lightner, Jr. to David B. Finley, May 15, 1956.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63) <REPORT OF MEETING, JUNE 8, 1956, DEPARTMENT OF STATE, ON THE LOAN EXHIBITION OP KOREAN NATIONAL TREASURES> 1956.6.14.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64) Letter from John Walker to Pyo Wook Han, July 31, 1956. (Internal_2, 국회전자도서관)

의한 전시품 운송과 전시 종료 즉시 반환만을 추가한 수정안을 1956년 9월 미국에 다시 보냈다.⁶⁵⁾ 총 전시기간은 첫 회의 때부터 이견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김재원은 미국 측이 전시 기간을 2년으로 고집하지 않도록 그리핑에게 별도로 부탁하기도 했다.⁶⁶⁾

1957년 2월 7일에 전문 16조의 협정서가 최종 완성되며, 한국미술 미국전시(이하 ‘한국국보전’)의 큰 틀이 확정되었다. 시애틀미술관과 LA 카운티미술관이 추가되어 전시개최지는 총 8개 기관으로 늘어났고, 총 전시 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정리되었다. 1957년 5월에 개최지 박물관이 서명을 완료하며 전시 협정은 마무리되었다.⁶⁷⁾

2) 미국 박물관장위원회의 전시 준비

(1) 미국적 시각에서 전시품 선정(1956.9~1957.2)

전시기획에서 홀이 각별하게 신경을 쓴 부분은 전시품이었다. 최상의 전시품으로 미국 주요 박물관의 지지와 관심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연대가 이르고,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최상의 전시품 특히 불상 등 불교 미술품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경우 최상이 아닌 전시품을 출품하려 하여 거절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였다.⁶⁸⁾

이 전시회는 한국의 국립박물관과 미국 개최지 박물관들의 공동 전시이고, 따라서 공동위원회에서 전시품을 선정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그리핑, 프리스트, 페인이 전시품선정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리핑은 고미술상 기파드의 동행을 고집하다가 사퇴하였다.⁶⁹⁾ 그래서 미국 측 위원으로 페인과 프리스트, 한국 측에서는 김상기, 손재형, 오종식, 이병도, 전형필 등 문

65) 「반출에 앞서 전시, 고미술품 관계위서 결정」, 『조선일보』, 1956.9.5.

66)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August 20, 1956. (장상훈, 앞의 2019, 139쪽)

67)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May 21, 1957. (장상훈, 앞의 2019, 176쪽)

68) Letter from Pyo Wook Han to President Syngman Rhee, Dec. 15, 1955. (국가기록원, BA0170220)

69) Letter from Department of State to Embassy Seoul, September 13, 1956. (Internal_2, 국회전자도서관)

화재해외전시위원이 다수 포함된 15명의 위원이 참여했다.⁷⁰⁾

미국 측 선정위원의 방한 이전에 문화재해외전시위원회가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 소장품 306점을 미리 선정해 두었지만,⁷¹⁾ 미국 측에서는 개인 소장품과 사찰의 불상까지도 요구했다.⁷²⁾ 한국 위원들은 고려 불화와 조선 시대 초상화, 산수화, 서예 등의 포함을 주장했으나, 프리리스트와 페인은 한국 회화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⁷³⁾ 불국사의 대형 불상은 사유재산이라 한국 정부가 출품을 결정할 수 없는 전시품인데도 끝까지 고집하였다.⁷⁴⁾ 결국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전시품 201점이⁷⁵⁾ 1956년 11월 말에 미국 박물관장위원회에 보고하였다.⁷⁶⁾

표 1. 전시품선정위원회의 선정현황(조선일보, 1956.10.13.) * ()은 최종 전시품 수량

소장처	종류						
	회화	조각	금속공예	도자기	토기	와당	계
국립박물관	7	11	8	42(41)	6	6(5)	80(78)
미국 소개품		2	10			1	13
경주분관					1	1	2
덕수궁미술관	12(14)	10(11)		53(49)	3		78(77)
기독교박물관					1		1
전형필	10			8			18
손재형	4			4			8
불국사		2(0)					2(0)
계	33	25	18	107	11	7	201

70) 문교부, 앞의 1960, 11쪽.

71) 『華府 等地에서 展示, 明年 十月부터 우리 文化財』, 『조선일보』, 1956.7.22.

72) 『一九九點을 最終選定』, 『조선일보』, 1956.10.17.

73) Robert T. Paine, Jr., "Exhibition of Korea Art",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No. 56-303, Museum of Fine Arts, 1958, pp.18-29.

74) 미국 반출이 임박한 1957년 5월에 불교계가 문교부장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철회되었고,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도 보고될 정도였다. (『해외전시국보반출에 말썽』, 『한국일보』, 1957.5.24.)

75) 『이백일점을 선정』, 『조선일보』, 1956.10.13.

76) Letter from Ardelia R. Hall to John Walker, Nov. 26, 1956.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전시품 선정과정에서 미국 측의 독선적이고 배타적 태도로 양측 간에 갈등은 매우 심각했으며,⁷⁷⁾ 한국 측 위원들은 한국문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구성이 아니라고 분노했다.⁷⁸⁾ 이들의 독단적 태도는 한국이 최고의 미술품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한국국보전의 모델인 1953년 〈일본 회화와 조각; 6세기~19세기〉 전시 준비 때 일본은 미국의 전시 제안에 마지못해서 응하며, 일부러 국보급을 제외하고 평범한 미술품을 내놓았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을 압박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최고의 목록을 받아냈다.⁷⁹⁾ 미국 측 선정위원들은 일본과 달리, 한국 측이 최상의 전시품을 미리 선정해 두었고 정부가 나서서 선정위원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한다.⁸⁰⁾

(2) 전시 준비의 난맥상

전시품 선정 이후 도록 원고, 사진 촬영, 운송 포장 등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박물관장위원회는 도록 원고를 프리어 갤러리(Freer Gallery of Art)의 일본미술 전공자 필립 스텐(Harold Philip. Stern)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였다.⁸¹⁾ 스텐은 1957년 4월에 방한하여 초안을 작성했고, 김재원은 스텐의 원고를 아리미츠 교이치⁸²⁾에게 감수를 맡길지를 그리핑과 상의하기도 했다.⁸³⁾ 도록의 한국 역사 개요는 주한미대사관의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77) 이 논란에 대해 페인도 관련 논문을 통해 자신의 선정 기준을 해명하기도 했다.

78) 김재원, 앞의 1992, 140쪽; 김재원, 앞의 1991, 115~116쪽.

79) Warren I. Cohen, *East Asian Art and American Culture*, Columbia University, 1992, pp.140~141.

80) 프리스트와 페인은 박물관 소장품이 포장된 채 부산에 있다는 것도, 남북 분단으로 북한 문화재가 남한에 없다는 것도 한국에 와서 알았다. 게다가 최상의 전시품을 마음껏 선정할 수 있었던 이윅가 이승만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대통령을 예방 후 깨달았다. Robert T. Paine, Jr., "Exhibition of Korea Art",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No. 56-303, Museum of Fine Arts, 1958, pp.8~29.

81) Letter from Marcus W. Scherbacher to Ardelia R. Hall, January 23, 1957.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82) 아리미츠 교이치(有光教一, 1907~2011)는 1941년부터 해방까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근무했다. 미군정청에서 특별고문으로 채용되어 1945년 국립박물관 개관과 1946년 호우총 발굴을 주도했다. (김재원, 앞의 1991, 50쪽)

83)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April 29, 1957. (장상훈, 앞의 2019, 168쪽)

Henderson)이 맡았고,⁸⁴⁾ 페인 책임 하에 전시 도록인 『Masterpieces of Korean Art』가 발간되었다.

도록 제작에서 난제는 사진 촬영이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서 사진 촬영하기를 원했으나,⁸⁵⁾ 국립박물관은 고미술품을 촬영할 수 있는 전문적 촬영 장비나 인력이 없었다. 그리핑은 사진 촬영을 명분으로 전시품을 호놀룰루로 우선 반입하고, 나아가 호놀룰루에서 전시를 개막하고자 애썼다.⁸⁶⁾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전시품을 촬영하였으나, 미국에서 재촬영하였다.⁸⁷⁾

전시 비용도 문제였다. 미군이 포장 재료를 제공하고, 호놀룰루미술관이 포장 전문가를 파견했으나 그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였다. 비용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보험료였다. 8개 참여 박물관이 한국 박물관에 2,000달러씩 지급하면 한국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 보험료가 32,000달러에 달했으나 미국 박물관들은 2,000달러씩 총 16,000달러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16,000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했다. 이 금액은 1957년도 국립박물관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여서,⁸⁸⁾ 정부는 1957년 6월에서야 예비비로 보험료를 겨우 확보했다.⁸⁹⁾

1957년 8월 말 전시품은 미해군 함선에 선적되었고, 1950년 7월에 미국 소개된 경주분관 소장품 15점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추가로 신고 1957년 9월 30일 내셔널 갤러리 수장고에 들어갔다.⁹⁰⁾ 한국국보전의 한 중요한 과정이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84) <Permission for Gregory Henderson to Serve as Member of the Catalogue Committee for the Visiting Korean Exhibition> 1957. 7. 31.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85)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Oct 30, 1956. (장상훈, 앞의 2019, 146쪽)

86)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Dec 6, 1956. (장상훈, 앞의 2019, 148쪽)

87) 김재원, 앞의 1991, 118쪽.

88) 이구열, 『한국문화재비화』, 한국미술출판사, 1973, 480쪽.

89) <문교부소관 해외전시경비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건> 1957. 6. 17. (국가기록원, BA0085177)

90) <해외전시국보수송에 관한 건> 1957. 10. 3. (국가기록원, BA0170220)

3) 국내외의 <한국국보전> 개막

(1) 국내 사전공개 <해외전시 한국국보전>

전시품이 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내 사전 공개였다. 국회의 승인 조건이며, 문화재해외전시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⁹¹⁾ 국립박물관은 1957년 5월 10일에 덕수궁석조전의 7개 전시실을 다 사용하여 <해외전시 한국국보전>을 열었다.⁹²⁾ 이 전시를 기념하여 고미술품해외전시위원회는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⁹³⁾ 언론들은 전시 개막 전부터 호의적인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⁹⁴⁾ 관람객이 11만 명에 달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문화재 국외 반출에 대한 그간의 의혹이 한국문화의 국외 선전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다.

<해외전시 한국국보전>를 본 인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은 미국에 한국 문화가 소개(紹介)되는 점을 크게 의미 부여하며, 미국이 한국을 재인식하게 되기를 기대했다.⁹⁵⁾ 그런 차원에서 한국문화를 제대로 보여 주려면 더 많은 국보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다른 의견은 전시품의 구성과 수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적 시각으로 선정되어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 선정위원의 독단적 전시품 선정의 문제점이 다시 거론되었다. 그러나 전반적 분위기는 미국전시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무엇보다도 <해외전시 한국국보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립박물관 최초의 대규모 특별전시라는 점이다. 국립박물관은 1945년 경복궁에서 개관한 이후 1950년 부산 피난, 1953년 남산 분관으로 퇴출 그리고 1954년 덕수궁석조전으로 이전 등 여러 사유로 미국전시를 추진하던 1955년 4월에도 여전히 상설전시조차 열지 못해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91) 「반출에 앞서 전시, 고미술품 관계워서 결정」, 『조선일보』, 1956.9.5.

92) 「현란한 민족예술의 제전 해외전시국보전에 붙여」, 『경향신문』, 1957.5.21.

93) 고미술품해외전시위원회,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 세계일보사 인쇄부, 1957.5.

94) 조선일보는 전시 개최 이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보였고, 개막 이후 거의 연일 보도했다.

95) 「海外展示古美術展覽會開催에 際하여」, 『조선일보』, 1957.05.12.

많았다. 그렇기에 <해외전시 한국국보전>은 비록 미국전시에 앞선 사전 공개 행사지만, 국립박물관 탄생 이후 처음으로 최상의 전시품을 한자리에 모은 뜻깊은 특별전이었다.

(2) 미국 순회전시 <한국국보전(Masterpieces of Korean Art)>

한국 문화재의 첫 국외전시 <Masterpieces of Korean Art>가 1957년 12월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신생 독립국 한국 문화가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 전시를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운 모든 미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다. 미국 측에서는 ‘미국 대중이 서구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국예술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발견하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⁹⁶⁾

한국국보전의 첫 개최지인 내셔널 갤러리는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시디자이너에게 전시연출을 맡겼다. 난초와 자갈 그리고 조명 등 소품을 활용하여 동양의 앞마당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⁹⁷⁾ 등 역사적 맥락이나 연대기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그저 미적 감각에 맞추었다. 미국 큐레이터들은 한국국보전을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했고, 한국예술의 독창성을 미국인에게 보여 주려고 한 것이다. 이에 비하면 도록은 한국문화에 대한 연대기적 이해를 제공하려 했고, 일본에서 분리된 독립국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국국보전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대단히 호의적이었다. 내셔널 갤러리에서 개막식은 신문의 1면 머리기사로 소개되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한국국보전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하며, 전시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⁹⁸⁾ 미국공보원(USIS)은 <한국국보전>이 서구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한국문화 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10분 내외의 영상물로 제작하였다.⁹⁹⁾ 이외에도 공연과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국보전이 미국 국민에게 소개되었다.

96) National Gallery of Art, *Masterpieces of Korean Art*, Washington, 1957.

97) National Gallery of Art(www.nga.gov/exhibitions/1957/korean.html)

98) Hahn, op. cit., p. 151.

99) USIS, <KOREAN ART MASTERPIECES>, NARA, 1957. (고려대 한국근현대사영상아카이브)



표 2. <한국국보전> 전시연출

한국 언론도 미국 현지 반응과 진행 상황을 국내에 주기적으로 전했다.¹⁰⁰⁾ 주된 기조는 한국문화에 대한 찬사이고, 그 성과는 ‘국제이해 증진’이었다. 또한 ‘전쟁’과 ‘폐허’로 굳어진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한국국보전>이 개최되었고, 또 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것에 환호했다.

1959년 6월, 호놀룰루미술관을 끝으로 1년 6개월의 한국국보전은 막을 내렸다. 국무부는 전시 종료 이후 전시품이 한국에 무사히 반환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대여 전시품이 안전하게 반환되는 과정을 촬영하여 부산 USIS에서 적절히 홍보할 것을 주한미대사관에 지시했다. 대여 전시의 성공을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난과 비판에 대비하여 기록물을 남겨두려는 의도였다.¹⁰¹⁾ 1959년 7월에 전시품이 무사히 돌아오면서¹⁰²⁾ 첫 국외 전시는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100) 「우리國寶展示會開幕特別展示演 萬餘賓客招待」, 『조선일보』, 1957.12.17.; 「盛況이룬國寶展示「워싱턴」에서」, 『조선일보』, 1958.01.08.; 「紐育人의 韓國古美術觀」, 『조선일보』, 1958.04.11.

101) <Return of “Masterpieces of Korea Art”>, 1959.6.16.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102) 문교부는 <한국국보전> 전시품이 국내 반입될 때 1950년 7월에 미국으로 소개된 경주분관품도 함께 반입하려고 했으나, 한미 양측의 목록이 일치하지 않아 이때 돌아오지 못했다. 이듬해인 1960년 1월에 경주분관 소개품 46상자가 반입되며 9년 만이 지나서 소개가 종결되었다. (「還國措置에難色」, 『동아일보』, 1959.9.26.); 「避難國寶10年만에 還郷「산디아고」港을 出發」, 『조선일보』, 1960.01.29.)

4. 한국국보전에 대한 고찰

1) 그리핑과 한국국보전의 관계

한국국보전은 각인된 성과에 비해 그 내용과 성격이 모호하다. 특히 1948년 그리핑의 계획을 한국국보전의 출발로 인식되는 부분이 그러하다. 사실 1948년 그리핑의 한국미술 전시계획과 한미 양국 차원의 1957년 한국국보전은 완전히 별개 사안이다. 그런데 그리핑의 한국미술 전시계획이 한국국보전의 연원처럼 거론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리핑은 한국미술의 미국전시를 구상한 최초의 미국인이다. 1948년 당시 국립박물관장 김재원도 그리핑의 계획에 찬성했고, 양국 정부도 그리핑의 전시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사업의 주체는 양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 그리핑이었다. 호놀룰루미술관을 환태평양 국가 간 순회전시 유통의 중심점으로 만들려는¹⁰³⁾ 그리핑의 구상에서 비롯된 한국미술전시였다. 6.25 전쟁 발발로 전시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그리핑의 전시계획은 종결된 것이다.

그런데 그리핑의 전시 구상이 다시 거론된 것은 피난 문화재의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와 3차에 걸친 국회동의요청 때문이다. 정부는 그리핑이 관장으로 있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부산 피난 문화재를 소개하려다가 그리핑이 주도하는 미국전시로 계획을 바꾸었고, 이를 위해 3차에 걸쳐 국회동의요청 절차를 밟았다. 그렇기에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개최된 1957년 한국국보전이 그리핑의 전시계획으로 보인 것이다.

그리핑과 한국국보전에 관한 오해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제1차부터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제출되던 1954년 6월까지의 그리핑이 주도하는 미국전시 계획이 맞다. 하지만 1954년 10월 흙의 방한 이후 전시의 주체가 국무부로 바뀌었다. 1955년 4월 국회가 승인했을 때 미국 전시는 그리핑이

103) 정무정, 앞의 2024, 291쪽.

아닌 국무부가 새롭게 시작한 국무부의 사업이었다. 지금까지 국립박물관의 역사에서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와 국회동의요청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그리핑에 관한 부분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그리핑의 1948년 전시 구상, 1954년 그리핑을 위한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 제출, 1955년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 통과 그리고 1957년 한국국보전 개최라는 일련의 사건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만 해석되면서 한국국보전이 그리핑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국보전과 그리핑에 관한 왜곡의 또 다른 배경은 한국 정부와 그리핑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리핑은 1948년 김재원과 전시 논의를 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전쟁기 피난 문화재의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와 국회동의요청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핑은 한국 정부와 신뢰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 그렇기에 비록 그리핑이 아닌 국무부가 한국국보전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그리핑의 요구가 국무부에 어느 정도 수용되도록 애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황은 전시의 주체가 국무부로 완전히 전환된 직후부터 확인된다. 1955년 7월 그리핑은 국무부의 홀이 호놀룰루미술관을 개최지에 포함해 줄지를 걱정하는 위치였고, 호놀룰루미술관은 개최지 선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놀룰루미술관은 홀의 전시기획 초반부터 개최지에 포함되었다.¹⁰⁴⁾ 그리고 1955년 8월 홀은 미국전시에 앞서 한국문화재를 호놀룰루미술관에서 보존처리를 한다면 록펠러재단의 지원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다.¹⁰⁵⁾ 이것도 한국 문화재를 호놀룰루로 먼저 가져가려고 그리핑의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956년 6월 국무부 주최의 첫 공식회의에서 그리핑은 한국 정부와 특별한 관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 정부와 이미 합의했다며 전시품을 우선 호놀룰루미술관으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¹⁰⁶⁾ 이외에도 그리핑

104) 6개 개최 협의기관 중 호놀룰루미술관을 제외한 5개 박물관의 관장 또는 주요 관계자는 모뉴먼트맨의 일원이었다.

105) Charles B. Fahs' Interview with Ardelia Hall, August 30, 1955. (정무정, 앞의 2020, 23쪽)

106) <REPORT OF MEETING, JUNE 8, 1956, DEPARTMENT OF STATE, ON THE LOAN

이 전시품 선정위원회에 포함되고, 국무부와 박물관장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파드를 전시품 선정에 동행하려고 하고,¹⁰⁷⁾ 호놀룰루에서 한국국보전 개막을 주장한 것은¹⁰⁸⁾ 한국 정부와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한국국보전의 한국 측 실무자인 김재원도 순회전시 기간 조율, 전시품 구성, 전시품 촬영과 포장, 도록 원고 작성 등 전시 진행 전반을 그리핑과 별도로 논의했다.¹⁰⁹⁾ [그림 14, 15] 즉 그리핑은 한국과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국보전에 직간접으로 계속 관여했고, 한국 정부 혹은 좁게 봐서 김재원이 비공식적으로 그리핑의 관여를 일정 정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국보전에서 그리핑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전쟁기 피난문화재의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별개의 두 사안의 전개가 시간상 일부 겹치면서 생긴 오해의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그리핑의 직간접 관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2) 냉전기 미국의 대외공보정책, 한국국보전

한국국보전은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무부에 전시를 제안했지만, 실체는 국무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국무부의 사업이다. 한국국보전의 기획자인 홀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이고 풍부한 예술적 전통을 가진 국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국보전으로 양국의 우호 관계가 깊어지고 아시아 미술에 대한 학계와 대중의 지식 제고를 기대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공산진영의 ‘약탈자’라는 비난을 우려하여 한국문화재의 미국 반입을 반대했다. 그런데 1953년 후반기 들어 국무부의 기조에 변화가 일어났다. 휴전으로 한반도 정세가 바뀐 영향도 있지만, 한국전쟁의 종

EXHIBITION OP KOREAN NATIONAL TREASURES >, 1956. 6. 14.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107)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embassy SEOUL, September 11, 1956. (Internal_2, 국회전자도서관)

108) 국제교류의 순회전시는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 개막이 통상적 관례였다.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Dec 6, 1956. (장상훈, 앞의 2019, 148쪽)

109)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October 17, 1956. (장상훈, 앞의 2019, 144쪽);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Dec 6, 1956. (장상훈, 앞의 2019, 149쪽)

식을 약속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존의 반공 정책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냉전체제에서 자유우방의 친선 강화 그리고 문화를 중시하는 미국의 이미지 창출을 새로운 대외공보정책으로 삼았다.¹¹⁰⁾ 한국국보전은 이런 기조 변화의 산물이다.

문화예술이 반공 선전과 국가의 이미지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1953년 개최된 〈일본 회화와 조각〉 전시에서 확인되었다.¹¹¹⁾ 냉전기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계기로 일본이 미국의 새로운 우방으로 인식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적대감 완화가 중요했다. 그래서 1953년 5개 도시를 순회하는 일본미술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미국 내에서 반일 감정과 편견이 급격히 완화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공유하는 새로운 동맹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 개선도 시급했다. 한국전쟁에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동아시아 냉전의 보루인 한국을 미국인들이 우호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무부는 한국의 최고 미술품 전시로 한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신생 독립국이고, 미국에 가치 있는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이 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¹¹²⁾

한국국보전을 통해 미국은 한국미술을 처음으로 서구에 소개하는 자유진영의 대표로서 미국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한미 간에 문화교류 사업이 된 한국국보전으로 미국은 공산진영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냉전체제에서 자유우방 진영의 우호 관계를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10) 기시 도시히코, 『문화냉전과 아시아』, 소명출판사, 2012, 71쪽; 김옥란, 「유치진과 미국, 드라마센터와 문화냉전」, 『한국학연구』 5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111) Takuya Kida, "Japanese Crafts and Cultural Exchange with the USA in the 1950's : Soft Power and John D. Rockefeller III during the Cold War",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25, No. 4, 2012.

112) Christine Y. Hahn, "Unearthing Origins: The Use of Art, Archaeology, and Exhibitions in Creating Korean National Identity, 1945-1962", *Visual Resources*, 28:2, 2012.

3) 한국국보전 성과의 한계

한국국보전은 어려운 시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전시의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적 결과만을 강조한 아쉬움이 있다. 먼저 전시 주체의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국보전은 미국의 필요에 시작되었고 국무부가 주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전시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립된 바가 없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시가 추진되었고, 전시품 선정에 공동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보험료도 한국이 1/2이나 부담했다. 그런데 한국은 전시기획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이 전시가 한국 문화재를 대여한 미국의 전시인지 혹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 전시인지도 모호하다.

물론 협정서의 제1조는 ‘전시회는 한국 박물관과 참가 미술관 공동으로 조직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선정위원인 프리스트와 페인에게 한국국보전은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미국 박물관들의 전시였다. 그래서 오로지 미국적 시각으로 전시품을 선정했고, 도록은 주한미대사관의 직원과 일본미술을 전공한 미국인에게 맡겼다. 그렇지만 한국 측 전시품선정위원을 비롯한 국민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전시로 받아들였다. 하나의 전시를 두고 미국과 한국이 각각 도록을 발행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¹¹³⁾ [표 3] 한국국보전의 주체에 대한 한미 양측의 극명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13) 1957년 5월에는 고미술품전시위원회가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 1957년 11월에는 문교부가 『국보도감』이라는 별도 도록을 발행했다. 그리고 미국 측이 발간한 『Masterpieces of Korean Art』까지 <한국국보전>에 관련하여 총 3종의 도록이 발간되었다.

		
<p>『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 고미술품해외전시위원회, 1957.5.</p>	<p>『국보도감』, 문교부, 1957.11.</p>	<p>『Masterpieces of Korean Art』, National Gallery of Art, 1957.</p>

표 3. <한국국보전> 관련 3종의 도록

전시 주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시에 표출된 일본의 영향이다. 전시를 주도한 미국 측 큐레이터들은 고려자기를 중시하고 한국 회화를 경시하는 일본미술의 프리즘을 통해 한국을 바라봤다. 그래서 프리스트와 페인이 선정한 전시품은 대부분 고려자기였고, 조선의 회화는 최소화했다. 이 결정에 논란과 비판이 일어나자, ‘한국은 전란이 잦아 전시할 수 있는 고미술품이 거의 없어서 20세기 일제의 발굴로 발견된 고미술품을 선정했다’고 페인이 직접 선정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¹¹⁴⁾ 회화의 부족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적이고 또 작가의 개성이 돋보이는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다.¹¹⁵⁾

도록의 서문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표출되었다. 내셔널 갤러리의 존 위커 관장은 ‘과거 한국은 예술 파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뤄져 20세기에 발굴이 없었다면 한국의 위대한 예술사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전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즉 <한국국보전>은 1910년 이후 일제에 의한 고고학 발굴의 성과라는 논리가 만들어

114) Hahn, op. cit., p.195.

115) Paine, op. cit., p.28.

졌다.¹¹⁶⁾ 아리미즈에게 도록 원고 감수 의뢰가 거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에서 분리된 한국의 정체성이 한국국보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했지만, 한국의 대표적 문화재가 일본 고고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미국 큐레이터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한국국보전에서 발생했다.

물론 한국국보전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가로 인정받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미국의 새로운 동맹이 되었다. 또한 국제적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이 문화민족으로서 자존감을 얻었다. 이 무엇보다도 한국국보전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립박물관이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의구심으로 국회의 특별조사까지 받은 국립박물관이 한국국보전을 통해 한국문화 선전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국보전이 개최되기까지 존재했던 많은 논란은 역사 속에 묻혔다. 게다가 한국국보전 성과에만 치중하여 일제에서 벗어난 독립국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려는 최초의 국외 전시에 여전히 일본의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도 함께 묻혔다.

5. 맺음말

일제의 지배 논리에 활용된 문화재가 광복 이후 별다른 비판적 인식 없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실질적 인식은 6.25 전쟁이 기점이었다. 전쟁 직후 문화유산은 완전히 다른 가치와 위상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민족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냉전체제에서 문화외교의 수단이 되면서 그 위상이 급부상하였다.

한국국보전은 문화재가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

116) National Gallery of Art, *Masterpieces of Korean Art*, op. cit., p. 13.

으로 전환되는 주요한 사건이다. 전쟁 후 고난의 시기에 한국의 독립과 문화의 독자성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탄생한 <한국국보전>은 성공한 전시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지만 표면적 성과에만 치중하여 한국국보전이 성사되기까지 6.25전쟁으로 격발된 문화재 국외 반출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 과정은 도외시되어 왔다.

본고에서 필자는 그동안 가리어진 문화재 반출 논란 과정과 국무부의 전시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한국국보전> 탄생의 실질적 배경과 과정 그리고 한국국보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먼저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에 의해 시작된 것처럼 알려진 한국국보전은 사실 미국의 대외공보정책 일환으로서 국무부가 주도한 사업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핑이 한국국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거론되는 것은 1948년 이후 형성된 한국정부와 그리핑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한국국보전의 최대 성과는 일본과 분리된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 문화재가 일본 고고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미국 큐레이터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국보전의 성공적 결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비판을 포함한 실질적 평가는 없었다. 이는 6.25전쟁기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두고 벌어진 많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쟁 중에 사립박물관인 호놀룰루미술관으로 피난 문화재 전체를 옮긴다는 것은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이제까지 제대로 논의되거나 평가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국보전에 내재된 정체성의 문제는 초기 한국 박물관의 정체성을 재평가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cerpt from Diary interview
 CHF in Honolulu
 June 1, 1952
 filed : 214 R in
 Honolu/Academy of Arts
 Chinese painting

Lunch with Mr. Robert P. Griffing Jr., Director of the Honolulu Institute of Fine Arts, and Mrs. Griffing in their home on the water beyond Diamond Head.

First concern, Kim Chevon and the Korean National Museum collections. Griffing had hoped to have them in Honolulu in accordance with President Ehee's hopes for their evacuation from Pusan; part of the basement area of the Institute was rescoiled to provide safe storage. The Navy has three times sent out ships to bring the collection here, each time to find the move postponed. CHF explained some of the difficulties in Pusan and suggested the best solution might be safe housing for the materials in Pusan. Conceivably if a small travelling exhibit abroad could be used to raise funds towards such a constructive program in Pusan, tied to possible help there from UNKRA and UNCACK, perhaps some of the Embassy objections to sending materials out of Korea could be overcome.

그림 1. 파스의 그리핑 면담 내용(1952.6.1.)

April 14th Honolulu Academy of Arts, Honolulu

Dear King : By this time you know that the Academy has received from the Korean Consul General a message from his prominent secretary, accepting on behalf of the Korean National Museum, and both of the Kim + his family. They also say that they will pay his salary. That should be his debt, without the Academy had the money for him to accompany the treasure, for which he is responsible even if his competitors and his country are overwhelmed. Griffing, the Director, and I hope very much that you can be attached to the collection as a full time job and that it will be necessary for you to come with them to Honolulu. Please be sure to explain to him that they will still be entirely under his control to exhibit, to study, to publish or to keep locked away. In case of this you would be invaluable especially if it is decided to send some of the important objects on a tour of American Museums - which may be thought possibly necessary but should be undertaken only with great caution.

News may come at any time now that the Navy has undertaken the transport of the boxes and can give us the date of their arrival at Honolulu. Griffing has written you that, in case of dire necessity, he can probably allow on wood to make over boxes. I imagine it may be scarce in Pusan.

I would give a good deal if I could afford to stay on and send a kind when the ship comes. But I'm retired from the Navy and haven't even a salary. Could my legs be of use.

Let me know - I'd like to let Griffing know as soon as there is a report on the condition of the Museum buildings at Seoul - not that

you come to Hawaii and join the work either on your present job if that is possible, or in some capacity connected with the whole plan of study. My guess is that it would be in America for 2 or 3 years, for the Korean government would take sometime to get the museums set again to install the collections even if they had funds. I should hope that a selection of the objects could be sent to a succession of American and Canadian museums for temporary shows, and that would be a full time job of great importance and interest.

Thank you for the following things you say my possible usefulness. I wish they were true - ~~but even~~ if I were whole enough I would like to be part of it all but I'm not, and I can't go back on an agreement to give a half course next fall at Keolu which will be paid for and keep the schedule. I should be grateful all things I can manage to come to Honolulu and give about studying the folk & the archaeological material & the Buddhist sculpture. Anyway I shall see you sometime and we'll talk of your Hawaii & Kyoto trip and about Korea.

Always you
 Kingdon

By the way, can you salvage some of the fine Japanese impurities or other items of the objects?

그림 2. 워너가 크네즈에게 보낸 편지(1951.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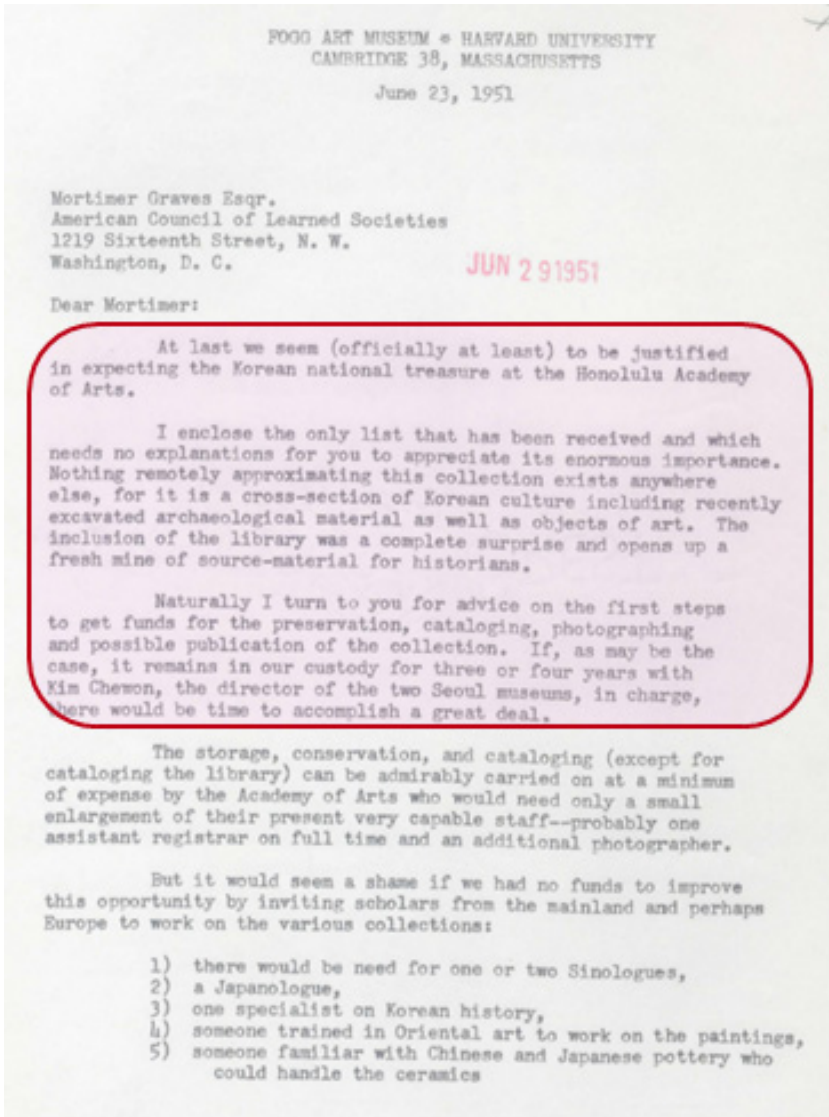


그림 3. 워너가 미국 학술단체협의회장에게 보낸 편지(1951.6.23.)

613 K
National Museum
main file
14

Excerpt from CBF's Diary
Pusan, Korea - April 12, 1952 MAY 23 1952

Back to the house for a quiet lunch. CBF asked Scherbacher on the proposal to send the Museum collection to Honolulu. I think this is out. Muccio and the army both opposed on morale and political grounds. Paik presumably knows this but has not wished to disappoint Rhee, who has from the beginning favored the move.

1. visit museums of Korea

그림 4. 파스의 일기(1951.4.12.)

Robert Griffing
Honolulu Academy of Arts
Honolulu / T.H.

February 28, 1954

Dear Bob:

Both of your letters of February 9 and 17 have been received. I am delighted to see you here in Korea. I think, that is best way to push whole thing.

After the receipt of your first letter I immediately forwarded your wish to the vice-minister of Education and requested him to get in touch with the higher authority. Your second letter now tells me that you directly wrote to our President. Of course, there is no doubt about that you get an official invitation from our President and my effort to let send you an official invitation is absolutely unnecessary.

To my knowledge American Embassy here in Seoul is very much interested in this matter and favoring for a circulating exhibition of Korean ar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erefore that American Embassy should be informed of your visit, too.

There i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e Hague starting from 23. April and I like to attend the conference. It looks, however, that there is only a little chance of going there and I certainly will be in Seoul during your visit in Korea.

Tell please Damon Giffard how I am happy to see him again in Korea and that we still do not have any words from St. Francis Hospital.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sincerely your's

그림 5. 김재원이 그리핑에게 보낸 편지(1954.2.28.)

October 5, 1953.

A/AN - Ardelia E. Hall,
Arts and Monuments Adviser

Recommendation for an Exhibition of Korean
Architecture and Antiquities.

It is proposed that the Arts and Monuments Adviser of the Department of State explore the possibility of an Exhibition of Korean Architecture and Antiquities, to circulate in approximately ten or twelve cities of the United States and possibly Canada.

The exhibition would be arranged with cooperation of American Museums, the U. S. Government, the United Nations, and UNESCO, and sponsored by the highest authorities. Admission fees, wherever possible, would be charged and the proceeds should be used for Korean relief, after the costs, which are not absorbed by the participating agencies and museums, are deducted.

The exhibition should include (1) enlarged photographs of Korean historic architecture in its present state with comparative pre-war photographs; (2) Korean antiquities of the first importance, the larger part to be obtained on loan from American museums and a few additional, outstanding pieces on loan by the ROK Government from the Korean National Collection and from Japanese collections.

The American Committee for the Restoration of Italian Monuments arranged a similar nation-wide exhibition of architectural photographs together with a few works of art lent by the Italian Government, in order to raise funds for Italian reconstruction. The catalogue is attached (enclosure 1).

The exhibition of masterpieces from the Berlin museums in thirteen American cities (which drew unprecedented crowds not likely to be equalled again) cleared \$305,964 from admission fees for the relief of German children in the American Zone. A fund administered on behalf of General Lucius D. Clay by the Council of Relief Agencies operating in Germany. Th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with a brief report of the loan exhibition is attached.

This brief memorandum is being submitted in order to obtain a preliminary opinion as to the proposal.

Enclosures:

1. War's Toll of Italian Art.
2. "The Returned Masterpieces of the Berlin Museum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XX, 513, May 1, 1949.

A/AN:ARHall:veh
UNE

10/5/53

ES BA

The National Gallery of Art - Mr. Finley

그림 7. 국무부의 전시 참여 제안(1953.10.5.)

23.

INTERVIEWS: CBF

Trip to the Far East
Seoul, Korea

May 3, 1954 (Continued)

Kim would like to undertake further excavation work since important known tomb sites near Tae-chong (?) are in danger of being obscured or destroyed through the growth of that city. However, he is blocked on this also by Presidential decree - Rhee saw a documentary some months ago which happened to show a tomb excavation in process, and since then has banned excavation willy-nilly.

PAN ON
EXCAVATION

Kim Chewon spoke of the training of Kim Wong-yong as his one real accomplishment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It has been hoped to have him go to Kyoto under our grant for Unshara's work there. But this too is blocked by Presidential policy which opposes passports for Koreans to study in Japan. As an alternative Kim Wong-yong is now applying for help under Fulbright to spend a year at NYU with Salmony, with the idea that he might then also be able to stop in Kyoto on his return. Kim hoped to know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in a few days. It is possible although not probable that we shall be asked for supplemental help on this one too.

KIM Wong-yong

Finally, Kim spoke of hopes raised by Griffing of Hawaii, who was recently here, that the proposed exhibit of Korean art would at last be permitted to go abroad. The proposal now is for a limited exhibition of several hundred pieces, which is a more acceptable proposal to the Korean legislature than was the earlier proposal to send the entire collections to Honolulu. CBF did not offer any encouragement, assuming that this plan was up to the Museums in the U.S. to work on.

EXHIBIT
OF KOREAN
ART

Kim was shy in expressing his own concern about the future in Korea but he is obviously worried lest the Geneva Conference result in some compromise which would permit the Communists to reassert influence in South Korea. He has been trying to get a residentship for his wife in a Honolulu hospital and also spoke to CBF of wanting his daughter to go to the U.S. to school when she is ready to enter high school in two years both because the schools in Seoul are inadequate and because he would like to have her in a safer environment.

In the evening Scherbacher held a cocktail party for John G. Eyers, visiting from Washington, and various returned students from America as well as a variety of educational leaders. George Paik, President of Chosen Christian University, took the opportunity to comment on President Rhee's objections to the dictionary and said that after all this was a private venture and none of the President's business. Paik hoped that the two private organizations concerned -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nd The Rockefeller Foundation - would go ahead anyway. However, it should not now be printed in Japan but in Korea, where adequate facilities were now available. CBF said he could not comment until he had learned more of the situation.

PAIK
ON
DICTIONARY

그림 8. 파스의 김재원 면담 내용(1954.5.3)

SEATTLE ART MUSEUM
VOLUNTEER PARK
SEATTLE 2, WASHINGTON

September 23, 1955

Miss Ardelia Hall
U. S. State Department
Washington 25, D.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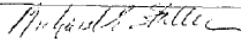
Dear Miss Hall:

For the past year I have been corresponding with Mr. Griffing of the Honolulu Academy of Arts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circuit of the Korean exhibit. He now advised me to write to you personally.

As you may know our Museum is the most active on the Pacific Coast in the field of Asiatic art. We therefore had the honor of being the only western museum included in the circuit of the Official Japanese Exhibition and had the record attendance. We are most anxious to participate in the circuit of this proposed exhibition of Korean art.

So much time and effort is expended in the organization of such an exhibition that I consider it most desirable that the circuit should be as extensive as possible to acquaint the American public with the high cultural background of this ancient people with whom we have been so closely allied. Whatever the size of the circuit is however, Seattle, both for its interest and for its port facilities, would be an essential factor in the circuit.

Sincerely,



Richard E. Fuller
President and Director

그림 9. 시애틀미술관장이 홀에게 한국미술 전시 참여 문의(1955.9.23.)

HONOLULU ACADEMY OF ARTS, HONOLULU, HAWAII

OFFICE OF THE DIRECTOR

July 20, 1955

Dr. Kim Chewon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Korea

Dear Kim:

Thank you so much for your good letter of June 27th which arrived a few days ago. I am awfully sorry that I did not receive your letter in Japan, but this time we stayed as far away from the Imperial as possible. I find it not only uncomfortable but also much too expensive, and we much prefer the Japanese style of inn anyway.

Dr. Elisseeff told me in Kyoto about running into you and it was wonderful to hear about you again. I am delighted to know that you have a functioning museum again and that it seems to be coming along so nicely. He also told me that the Korean Assembly had passed the idea of the travelling exhibi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I hope that

Ardelia Hall will keep Honolulu on the list. Knowing Ardelia, I keep my fingers crossed, but nevertheless we want very much to be on it and if we are not, I think I will raise a fuss with your President.

Meanwhile, if you hear any more about it, please let us know. Ardelia never tells me anything.

Thank you also for giving me your reaction to our request for the gold treasure. I will write to the President and count on your recommendation if he brings it up instead of simply tossing the whole idea aside.

그림 10. 그리핑이 김재원에게 보낸 편지(1955.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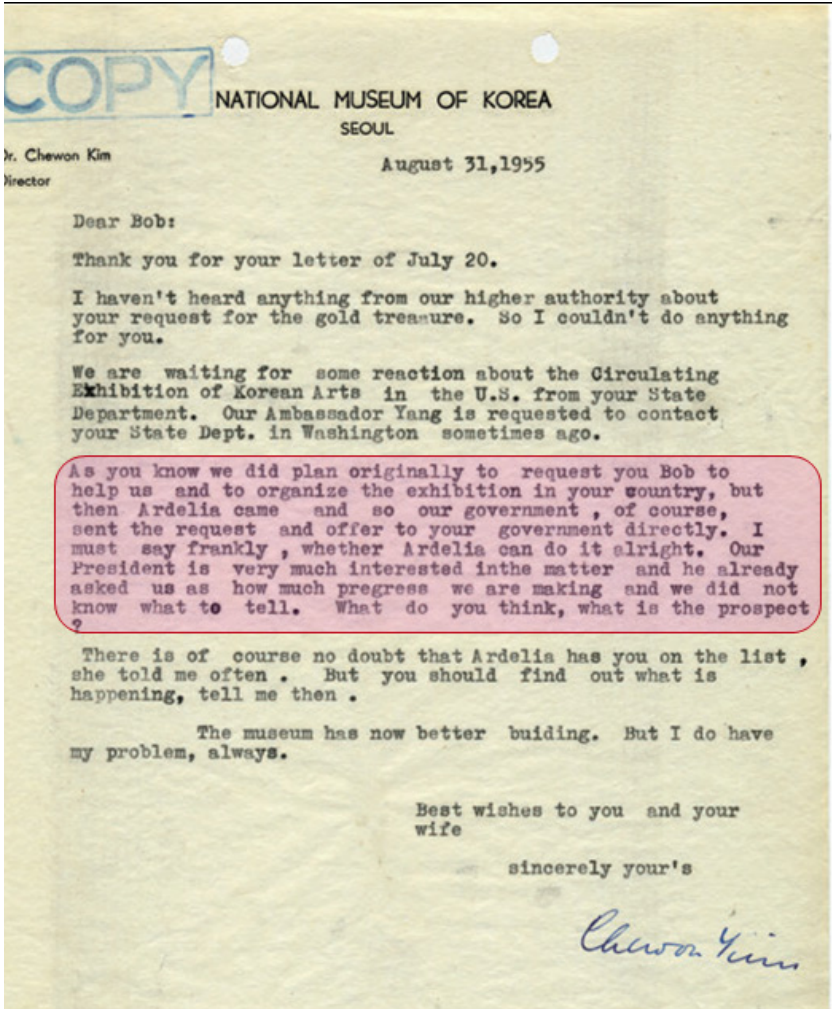


그림 11. 김재원이 그리핑에게 보낸 회신(1955.8.31.)

Dear Mr. Griffing:

Your letter of April 12, 1956 concerning the proposed Korean exhibition has been received. I have noted that you sent copies to the Korean Consulate-General, Honolulu; the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r. Kim Che-won, Seoul; and Mr. W. Damon Giffard. I am sending Mr. David E. Finley a copy of this reply and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kindly hand on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others.

The National Gallery of Art did not consent on March 17, 1956 to hold the Korean exhibition. The Rockefeller Foundation has not made a grant for American museum experts to go to Korea to select the exhibition. In any case, the Rockefeller Foundation would not be asked to pay for my travel. I have tried to keep Mr. Finley, Mr. Archibald G. Wenley, Mr. Robert Treat Paine, Mr. Laurence Sickman, an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formed about the proposed exhibition as a matter of courtesy. I have been in communication with Dr. Kim Che-won through the American Embassy in Seoul and the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On April 9, 1956 I wrote to you saying that plans for the Korean exhibition were still under consideration and that I would write to you as soon as some decision was reached.

I am sorry that the Honolulu Academy of Arts has been inconvenienced by the delay. However, I hope that we may continue to work with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a really great exhibition of Korean art possible.

Sincerely yours,

Ardelia R. Hall
Arts and Monuments Adviser

Mr. Robert P. Griffing, Jr.,
Director, Honolulu Academy of Arts,
Honolulu, Hawaii.

P.M.

ARH
AM: ARHall:mm

4/17/56

AM
NA - Mr. Ng

그림 12. 홀이 그리핑에게 보낸 회신(1956.4.17.)

ham
ARH

March 15, 1956

RECEIVED

45 44

Dear Mr. Walker:

A loan exhibition of Korean art, representative of Korea's great national treasures, is to be assembled and shown in six American museums in 1957 - 1958. This will be the first exhibition of Korean art ever arranged in the West. The exhibition will be under the patronag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It will be arranged under the joint sponsorship of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participating museums.

During the period of the exhibition an American Committee to aid in the Restoration of Korean Monuments, in association with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will raise funds from private subscription for the urgent repair of Korean monuments and the rehabilitation of Korean museums.

The Rockefeller Foundation will provide funds for three American directors or curators, who are specialists in Far Eastern art, to go to Korea to select the exhibition; and the Department of State will provide travel grants for the Korean museum directors and curators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ccompanying the exhibition. An estimated budget, on the basis of similar costs for the Japanese exhibition, will be about \$30,000.00. Therefore, the amount to be deposited by each of six museums will be \$5,000.00.

In view of the great prestige of the National Gallery of Art it is hoped that the trustees will agree to participate in the exhibition and to plan for the opening to take place at the National Gallery of Art.

Sincerely yours,

CS/W

Ardelia R. Hall
Arts and Monuments Adviser

Mr. John Walker, Chief Curator,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 C.

S/S-CR

MAR 15 1956 P.M.

AM:ARHall:lqf 3/15/56

그림 13. 홀의 전시 기획안(1956.3.15.)

HONOLULU ACADEMY OF ARTS, HONOLULU, HAWAII

OFFICE OF THE DIRECTOR

October 17, 1956

Dr. Kim Chewon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Korea

Dear Kim:

Thanks very much for your good letter. I was glad to hear that you and Alan and Bob have been able to accomplish so much in such a short time. Maybe the private collections will be able to supply the gap in the paintings.

I had a feeling that there would be difficulty about having the objects photographed in Honolulu. Don't worry about it. We would have been - and we still are - happy to do the photography if it seems desirable to have it done here. However, we will agree to any plan that is subscribed to by the American museums involved.

I agree with you that it is unnecessary for anyone to know about our correspondence. As far as I am concerned, it is confidential, and I am very grateful that you speak so freely and frankly with me.

Damon and I will both be so deeply interested in hearing about the final results of the selection. I wonder when Alan and Bob will be in Japan? I had a letter from Alan, but he was vague on that point.

Damon joins me in sending all best greetings to you and your family. Have you received Dr. Larsen's latest letter yet?

As ever,



Robert P. Griffing, Jr.
Director

그림 14. 그리핑이 김재원에게 보낸 편지(1956.10.17.)

Dr. Kim Chewon
December 6, 1956
Page 2

I don't know whether Walker will think this is a very good idea or not, since the National Gallery usually does not like to participate in exhibitions unless they can be first on the list. However, Honolulu being outside the continental limits of the United States may make some difference. It would seem to me that this suggestion would be by all means the most practical one. However, a number of other museums are involved, and there *are* inter-museum politics as you can imagine, even though we are rarely bothered by them because we are so far away from the rest of the museums. I know that they will be very much influenced by your feelings in the matter in regard to all details as the planning progresses. This particular letter, however, must remain confidential between us, as much of our correspondence is.

In regard to the sponsorship forms for your wife, I have not been able to send them to you until now because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regulations in the Immigration Service. The old immigration forms are no longer necessary. Instead of them, I will send you within the next few days an affidavit from my bank, from my employer, and from myself stating my ability to act as financial sponsor for your wife. You should have these within about a week's time. If they do not arrive by then, do let me know. Don't worry about any unpleasant aspects of the situation. I am not concerned by these at all, and once again, let me assure you that you will have these forms very shortly. *Your wife should take the affidavit to the U.S. consulate in Seoul.*

I was very happy to hear that you had received the little mementoes that Marjorie and I sent to you for the children, and I hope that they really may be useful as winter approaches.

Damon joins me in sending all best greetings to all of the Kim family, and once again, many thanks for all the wonderful things you did for the American Committee of Selection throughout your country.

With best aloha,

As ever,

Prof
Robert P. Griffing, Jr.
Director

그림 15. 그리핑이 김재원에게 보낸 편지(1956.12.6.)

■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고려대학교 한국근현대사영상아카이브(<http://kfilm.khistory.org/>)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http://archive.history.go.kr/>)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https://archives.nanet.go.kr/search/generalDocRecordList.do#none>).
국회전자도서관(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List.do?queryText=ardelia%3AALL_NI_TOC%3AAND&query=ardelia).
Monuments Men and Women Foundation <https://www.monumentsmenandwomenfd.org/>
National Gallery of Art(www.nga.gov/exhibitions/1957/korean.html)
Rockefeller Archive Center(<https://dimes.rockarch.org/>)
- 고미술품해외전시위원회,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 세계일보사인쇄부, 1957.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1945-2005』, 2006.
기시 도시히코, 『문화냉전과 아시아』, 소명출판사, 2012.
김리나, 『한국전쟁시기 문화재 피난사』, 『미술자료』 86, 국립중앙박물관, 2014.
김재원, 『여당수필집』, 탐구당, 1973.
_____, 『경복궁야화』, 탐구당, 1991.
_____, 『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1992.
_____, 『東西를 넘나들며』, 탐구당, 2005.
김현정, 『6.25전쟁기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국외반출 과정에 대한 신고찰』,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7-1, 국립문화재연구원, 2024.
문교부, 『國寶圖鑑』, 1957.
_____, 『문화재 미국 전시 보고서』, 1960.
이구열, 『한국문화재비화』, 한국미술출판사, 1973.
이광표, 『6·25 전쟁기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의미와 성과』, 『한국학연구』 6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장상훈, 『김재원 국립박물관 초대 관장 영문편지』, 국립중앙박물관, 2019.
정무정, 『1950년대 미국에 소개된 한국미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4,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5.
_____, 『한국전쟁과 국보해외소개(疏開/紹介) 그리고 록펠러재단』,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0,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0.
_____, 『《한국 국보전》 전사(前史): 불발된 1947년 한국미술전 계획』, 『미술사학』 47,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4.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집위원회, 『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협회, 2009.
- Christine Y. Hahn, "Unearthing Origins: The Use of Art, Archaeology, and Exhibitions in Creating Korean National Identity, 1945-1962", *Visual Resources*, 28:2, 2012.

Howard A. Link, Robert P. Griffing Jr.(1914~1979), *Archives of Asia Art*, Asia Society 33, 1980.

National Gallery of Art, *Masterpieces of Korean Art*, Washington, 1957.

Robert T.Paine,Jr., "Exhibition of Korea Art",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No.56-303, Museum of Fine Arts, Boston, 1958.

Takuya Kida, "Japanese Crafts and Cultural Exchange with the USA in the 1950's : Soft Power and John D. Rockefeller III during the Cold War",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25, No. 4, 2012.

Warren I. Cohen, *East Asian Art and American Culture*, Columbia University, 1992.

Reevaluation of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hibition ‘Masterpieces of Korean Art’ in 1957

Hyunjung KIM*

The Korean National Treasures Exhibition, titled “Masterpieces of Korean Art” held in the United States in 1957 was the first event to introduce Korea’s cultural identity to the world, and it was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that instilled cultural pride among the Korean people. It also elevated the statu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Despite its significance, the process leading to the exhibition and the nature of the exhibition itself have not been thoroughly evaluated.

The narrative that “Masterpieces of Korean Art” began Robert P. Griffing Jr., the director of the Honolulu Academy of Arts, is mythologized; it was, in reality, an initiative of the U.S. State Department under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which was revising its anti-communist policies.

Griffing, the first Westerner interested in exhibiting Korean cultural artifacts in the U.S., had his plans disrupted by the Korean War. The Korean government has since entrusted Griffing with a U.S. touring exhibition of evacuated cultural. When the U.S. State Department expressed interest, Griffing’s plans were ultimately discarded, leading to a new “Masterpieces of Korean Art” exhibition driven by the State Department, marking a new phase in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U.S. State Department intended the “Masterpieces of Korean Art” exhibition to enhance bilateral relations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Curator

culture during the Cold War. It aimed to mitigate American dissatisfaction with its involvement in Korea and to foster a positive perception of Korea as a stronghold against communism in East Asia. This exhibition helped establish Korea as a nation with a rich historical heritage and a valuable ally to the United States in the fight against communism.

The success of the “Masterpieces of Korean Art” exhibition has often been highlighted without a critical examination of its context. Contrary to claims that it distinctly separated Korea’s cultural identity from Japan, the selection of exhibits, catalogue contents, and exhibition staging were influenced by a Japanese perspective. This led to an ironic situation where Korea’s cultural heritage, first discovered by Japanese archaeologists, was acknowledged by American curators. The lack of substantive evaluations at the time stemmed from the desire to avoid controversies regarding the overseas introdu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o quell debates over the export of cultural artifacts during wartime.

Keywords: National Museum of Korea, Chewon Kim, Robert P. Griffing Jr., Ardelia R. Hall, Honolulu Academy of Arts, U.S. State Department